

한국문화교류 소식

4호 2012년 6월 15일 발행 •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층무빌딩 303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무예(武藝)와 문예(文藝)의 한류



민 현 식 국립국어원장

한국어를 배우려는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에 뜨겁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일어난 한류가 가요, 한식, 패션의 한류로 이어짐은 기쁜 일이다. 이러한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이민으로 떠난 태권인들이 동양의 체육이라면 유도, 가라테, 쿵푸가 지배하던 각국에서 태권도장을 세우고 태권도 정신을 보급한 것이야말로 한류의 원조이기 때문이다.

태권인들은 약소민족으로 차별받던 우리에게도 호국의 상무정신을 상징하는 무예로 태권도가 있음을 알려 무예의 한류를 알렸다. 마약,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성교육의 요람 역할도 하여 각국의 지도층과 대중의 호감을 샀다.

태권도가 무예의 한류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한국어는 한국의 문학예술 곧 문예의 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문예의 한류는 한국어 회화 학습 수준을 넘어 한국의 인문학 곧 문학, 철학, 역사의 명작과 작가의 삶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읽힐 때 가능하다.

문예의 한류는 우선 한국 문학의 한류이다. 우리가 서구 작가의 시, 추리소설, 영화 원작을 원어나 번역으로 즐기듯, 한국어 학습도 궁극적으로는 한국 명작을 읽히는 문예의 한류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에 공감될 시조, 시, 소설을 발굴해 한국어 교재에 싣고 알려야 한다.

문예의 한류는 한국 철학의 한류도 포함한다. 한국 철학의 고전 명저와 원효, 율곡, 퇴계의 사상, 정

약용 같은 실학과와 명저에서 인류 보편적 소재를 찾아 알려야 한다. 또한 문예의 한류는 한국사의 한류도 포함한다. 세계가 한국의 기적을 주목하므로 기적의 한국을 만든 주역들을 소개하는 전기문도 실어야 한다. 세종과 이순신, 건국과 건설의 대통령 이야기와 경제 신화를 낳은 애국 기업인의 생애를 소개해 한국의 기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심지어 수난의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명성황후'가 흥행하였듯이 우리의 수난사 속에서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이야기는 많다. 이상과 같은 문학, 철학, 역사의 한류가 한국어 읽기 학습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영화, 연극, 음악 등의 예술과 연계된다면 문예의 한류는 더욱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오늘날 한국어는 인구수로 8천만(남한 5천만, 북한 2,300만, 해외 700만)의 대국 언어로 세계 15위권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 규모의 나라이지만 해양국가로 진출해 자국어를 세계어로 만든 나라들이다. 올해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만 가입한다는 20-50클럽에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일곱 번째 국가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작년에는 무역의 수출 수입 총합이 1조 달러를 돌파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보다 더 많은 세계 7위의 무역 규모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비하의 사대주의 의식을 버리고 세계로 나아가 대국 국민다운 선진 국어 교양을 갖추고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자들은 한국의 국력이 높지 않던 시절에 외국에 진출해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든 태권인들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골프, 럭비, 야구와 가라테, 우슈 등의 유사 운동을 제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게 한 것은 국제 체육인들을 집요하게 설득한 스포츠

외교의 결실이면서 세계인에게 맞는 태권도의 국제화, 표준화 전략을 실천한 결과이다.

이러한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은 한국어의 세계화 전략에도 교훈을 준다. 각국의 대통령, 장관, 총장, 지역 교육감과 교장을 집중 설득해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넣도록 하는 상층 설득 외교가 절실하다. 그러려면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법, 한국어 능력 평가를 각국의 외국어교육 정규과목 기준에 맞추는 작업부터 해야 하므로 교민사회와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단합해 이를 추진하고 정부도 이를 도와야 한다.

세계화한 언어들은 모두 세계인의 시각에서 현지에 맞는 자국어의 교육과정, 교재를 개발해 성공하였으니 영국은 영어 산업이 영국의 2위 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어교육도 2위 산업이 될 날을 꿈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을 육성해 한국어 보급과 한류의 거점기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립국어원도 한국어교육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맞춤형 한국어 교재와 교수학습법의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외의 국어 환경은 낙관적이지만 국내의 국어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문제이다. 인터넷에 넘치는 비방, 선동, 거짓의 언어, 청소년의 언어폭력, 영화와 방송에 넘치는 비속어, 외국어와 알파벳으로 넘치는 아파트 이름, 간판, 상품명을 보면 국어가 중병을 앓고 있음을 보여 준다. 7대 무역 대국이 되고 한류가 불며 한국어의 세계화 전략이 뛰어나도 우리가 한국어를 바르고 곱게 사용하지 않고 선진 국어 교양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는 배려와 격려의 언어예절, 창조적 상상력과 긍정의 언어, 합리적 토의의 설득 문화, 비폭력 소통의 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국어 환경의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부디 태권도가 일으킨 문예의 한류가 오늘의 가요, 요리, 패션의 한류를 넘어 한국어교육을 통해 문예의 한류로 완성되기를 염원한다.

동서국제학 학교 한국어반



이 정 혜
동서국제학학교 한국어교사,
뉴욕한인교사회 공동회장

2006년 9월, 뉴욕 플러싱에 있는 동서국제학 중
고등학교(East-West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처음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첫 수업을 하면서 뉴욕시 공립 중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두 번째
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게 되
어 설레었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본교가 다른 학교
와 구별되는 이유는 아시안 스타디(Asian Study)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의
학생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한 언어를 선택해
서 배웁니다. 저는 앞으로 세계 속에 떠오르는 아시
아, 그 중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학교의 이념
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어 반이 2012년 6월에는 3번

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현재 전교생 수는
600여명이었고 그 중 약 15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수업으로 배우고 있으며, 한국어 반은 모두 7반
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대부분이 비한국계 학생입
니다. 그러다보니 교실을 떠나면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도 안타까웠고, 한국어를
왜 배워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생들에게 동
기를 부여하는 것도 저에겐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
다.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그들의 현재 생활 속에
서 적용되는 언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변에 있는 한국 상점에 가
서 한국어로 인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남학생이 실제로 상점에 가서 “안녕하세요!” 라
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반가워하면서
학생의 이름을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레이언입
니다.” 라고 교과서 식으로 대답했더니 아주 좋아하
면서 공짜로 음료수를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선량
하고 덩치도 꽤 큰 이 흑인 남학생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어와 한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는데 옆머리 부분에 자기 이
름을 한국어로 써서 면도로 밀고 왔습니다. 또 본인
의 별명을 “까만별” 이라고 지었고 장래 희망이 한국
의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학
생은 졸업 후에도 가끔씩 학교를 찾아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저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갔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 한국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어떻게 한국화장품을 알고 사왔을까... 너무 고맙고 신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마침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회장인 '에반스 리비어' 씨께서 우리 학교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분은 평생을 동아시아 전문 외교관으로서 고위 관직을 은퇴한 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되신 미국인으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스페인어에도 능통하셨습니다. 리비어 회장님께서 아침 일찍, 학교 조회 시간에 오셔서 현 시대에 아시안 언어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언어라고 설파하신 것이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날 오전, 리비어 회장님과 각 학년 한국어 반 대표의 특별 대담을 주선, 한국과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그들의 장래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좋아할 것 같아 문화 알리기에도 힘씁니다. 해마다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 토요일에 열리는 '코리아 퍼레이드'에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퍼레이드 행진에 직접 참여합니다. 가장 키가 큰 학생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몇몇 학생은 한복을 입고 마치 한국인인양 "안녕하세요!"를 목청껏 외치면서 양손에 작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맨하튼 5번가를 누빉니다. 그리고 퍼레이드가 끝나면 길거리에 펼쳐진 시끌벅적한 장터와 주변의 한국 상점도 둘러보고 한국음식을 사서 둘러 앉아 나누어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마다 30명 정도 데리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찍공과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한국어를 가



잡채 먹기

르치는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수업은 정말 인기 만점입니다. 음식만큼 만인에게 통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세 번, 일 년이면 여섯 번 정도 수업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김밥, 잡채, 비빔밥, 만두, 송편은 물론 해물파전, 불고기, 돼지 삼겹살 구이, 쟁반 국수, 호떡, 겨울철 간식, 떡볶이 등 맛있는 한국음식으로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먹기 전에는 반드시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해야 하며,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연장자인 저부터 먼저 먹어야 한다는 등 한국의 음식 예절도 가르칩니다. 평소 말도 꽤나 안 듣고 말썹만 피우던 학생들도 그때 만큼은 다 모범생이 되곤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행히 한국으로 여름 캠프를 보낼 수 있는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마다 교사의 추천을 받고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18일 동안 한국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옵니다. 다녀와서는 반드시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캠프 경험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면 몇몇 학생들이 캠프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그들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0년에는 9명 중, 6명은 자비로 여름방학동안 한국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줬다

고 신청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 다녀온 아이들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 힘들었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2011년 1월 13일, 뉴욕에서 '한국의 날' 선포를 기념하여 지역사회 대표자 1,000여명이 모여 맨해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대한 연회를 치렀습니다. 연회 시작 전에 우리 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애국가를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학생들이 뉴욕 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인들과 유명 인사 앞에서 당당히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하면서 자부심을 느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애국가를 듣는 한국 분들도 가슴이 뭉클하였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뉴욕 내 한국인의 위상도 만끽하였고, 한국과자, 한국음료, 공예품이 있는 선물보따리를 한 아름 받아 들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는 경이로운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며 무척 즐거워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화 그리기 수업

우리 동서국제학 학교는 이렇게 6년간 한국어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한 분 더 있고 풍물 음악반도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방과후 문화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본교의 미국인 교사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교사 강습회도 일 년에 서너 차례 실시하며 한국과 한국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 세계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후발도상국에서 태권도의 가치와 국제교류



이 기 수

국기원 파견 태권도 사범,
스리랑카 태권도 협회 기술위원장

후발도상국에서 태권도를 지도한지도 벌써 15년째 접어든다. 지난 청춘을 바쳐서 태권도의 황무지인 이곳 스리랑카에서 태권도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러한 경험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늘도 후발 개발도상국의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초창기에 활력소가 되었던 힘은 “나는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정부 파견 태권도 사범이다.”라는 ‘자부심’이었지만, 후에는 나의 활동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이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해 왔다. 스리랑카에서 어려웠던 적은 너무도 많았다. 처음 파견되었을 때 스리랑카에 태권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던 태

권도도 ITF(북한의 국제태권도 연맹)였다. 현지 ITF 사범들이 나를 많이 경계하며, 현지 언론을 통해 나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당시 태권도 보급을 위해 체중도 10kg 정도 빠져가며, 활동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내가 지도한 특수경찰대가 2년 연속 전국태권도대회 종합 우승을 한 후에 체육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후, 현지 ITF 사범들이 많이 잠잠해 졌었다. 당시 스리랑카 정부는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너무도 열악하여 태권도 선수들의 식단을 보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며 훈련하는 선수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속으로 눈시울을 붉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무더운 열대지방의 날씨와 영양부족으로 골격이 약해 부상도 심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태권도를 전 지역에 보급, 확대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2007년에는 전국체전 정식종목에 채택시켰고, 2008년에는 학교 태권도 연맹을 결성하여 현재 60개 초, 중, 고등학교에 태권도 부를 창설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전국 대학체전에도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켰고, 육군 전국 태권도 대회도 창설해 매년 16개 연대가 참가하고 있으며, 육군 특수부대와 특공대, 헌병대에 태권도를 필수 훈련과목으로 채택시키고, 공군과 해군에도 태권도부를 창설시키는 등 태권도 수련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스리랑카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그들이 ‘친한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주재국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향상 될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정책은 눈으로 보이고, 한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태권도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것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이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스리랑카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태권도를 통해 자신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때 내 자신도 보람을 느끼곤 한다. 스리랑카 Kandy지역에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던 “란짓”이라는 친구는 체중이 100kg이 넘고, 한마디로 강패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친구가 우연히 나에게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고, 육군 태권도팀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태권도를 지도하게 되었다. 열심히 훈련하여 국가대표가 되어 남아시아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 현재 스리랑카 Kandy지역의 영웅이 되었고, Kandy 시 태권도 협회장과 육군 특공대 중위로도 승진하였다. 강패였던 그의 정신세계가 변하여 현재는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태권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란짓은 한국인 사범님과 태권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며, 지금도 한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앞장서서 도와주곤 한다. 현재 스리랑카는 한국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명문대학인 콜롬보 대학교와 페라데니아 대학교 등 9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지니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가 장차 한국과의 친선 관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과거의 냉전시대에는 국제관계에서 작용하는 힘이 군사력이나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적이었으나, 현대는 자국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최중문 대사와 2012년 전국 태권도 대회 시상식 장면

의 문화를 무기로 국가의 이익을 얻는 유형이 대세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태권도 지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류’ 그리고, ‘한국의 전통무술’이라는 내재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국가의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태권도 지도 대상이 대통령 경호원, 군, 경찰 등 정부의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고위급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외교적 수단으로 태권도 보급의 가치는 한국의 국익과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7년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에서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선거를 위해 인천과 뉴델리가 경합을 하고 있었을 때, 인천 유치를 위해 10년 동안 친구로 알고 지낸 스리랑카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NOC 위원장과 함께 쿠웨이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미팅에 참가하여,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적도 있고, 2004년 쓰나미 재해로 한국 교민 1명이 실종되어 연락이 두절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아무리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을 해도, 경찰서까지 바닷물로 잠겼던 피해 지역에 쓰나미가 다시 올까봐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고, 더욱이 3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던 스리랑카는 자국민의 피해가 워낙 커서 한국인의 1명 실종은 거들떠 볼 겨를도 없었는데, 태권도를 배운 육군 장성에게 부탁해 소속부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인을 돕기 위해 피해 지역으로 파견 나갔을 때에는

한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태권도 사범이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다. 또한, 노사 분규로 인하여 기울어져가는 한국 기업체에 태권도를 배운 경찰 제자들을 투입하여 한국 근로자들과 한국기업체를 방어했던 적도 있고, 예전에 북쪽지역에서 타밀 반군의 폭탄 테러로 간헐 있던 한국인을 태권도를 지도한 특수 부대요원들을 파견 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적도 있다. 이처럼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태권도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크며, 무도 스포츠를 뛰어 넘는 민간외교, 그리고 국제교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민간외교와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라 생각한다. 덧붙여,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의사소통 능력, 현지 문화의 이해와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한 예

로 스리랑카에서 비슷한 환경과 성격의 현지 정부 기관들에 한국 국제협력단이나 NGO 소속으로 2명의 봉사단원들이 각각 파견 나오곤 한다. 그 기관들은 모두 열악하여, 한명의 단원은 항상 불만을 토로하며 업무를 소홀히 한다. "컴퓨터가 없어, 에어컨도 없어, 지저분해....." 하지만 다른 기관의 단원은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기관에 자신이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 1년 후 후자의 단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다. 프로젝트를 해서 아무것도 없던 기관에 큰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주재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근무여건과 자신의 위치까지도 향상시켜 나간다.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바람직한 마음가짐, 태도를 통해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재국 국민들이 그 사람의 활동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민간 외교이자 국제교류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태권도 기사 '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시범'

6월 8일(금), 뉴욕의 랜드마크 타임스퀘어에서 화려한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미주태권도교육재단(이사장 김경원) 주최,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 후원으로 일반 공연이 허용되지 않는 타임스퀘어 공간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미주 태권도계는 뉴욕문화원 등 한국 정부의 지원 아래 2002년부터 공립학교 태권도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토록 노력해 왔다. 이날 시범을 보인 어린이들은 공립학교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매사추세츠의 보위초등학교(Bowie Elementary School) 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먼 버거스(Norman Burgess) 교장의 관심으로 탄생한 학부모 태권도 시범단 레몬스터팀의 파워 넘치는 격파로 관중들을 감탄시키며 미주에 뿌리내린 태권도의 역사를 실감케 했다.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시범이 처음 펼쳐진 것은 지난 2010년, 일회성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공립학교에 정착한 태권도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기 위해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매년 태권도 이벤트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대규모 시범이 성사됐다.

출처 NEWSIs, 2012. 06. 10.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 ICKC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3월 30일(금), 오후 2:30~5:30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130 여명이 모인 가운데 ICKC 창립 1주년 기념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세계 속 한국어와 태권도의 위상”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어 및 태권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국어부문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에 대한 발제는 본회 연구위원장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갑수 교수가, 토론은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과장과 호원대 한국어학과 진대연 교수가 진행하였다.

태권도부문 “발제1-태권도 강국을 태권도 선진국으로”에 대한 발제는 본회 운영위원이며 경희대 태권도학과 송종국 교수가, 토론은 가천대 교육대학원 김하영 교수가 진행하였다. “발제2-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 철학 및 정신 구축”에 대한 발제는 태권도 문화연구소 이경명 소장이, 토론은 경희대 체육대학원 하피터 교수가 진행하였다.



■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세종학당재단) 방문

5월 9일(수) ICKC 박갑수 연구위원장, 이대근 상임이사 및 사무국 관계자들은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 및 세종학당 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ICKC 소개 및 인사, 상호 협조할 업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가졌다.

■ 뉴욕 이선근(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사무총장) & 김근순(동 단체 임원) 박사 운동본부 방문 & 회의

5월 24일 오후 4시 30분 이선근 박사(뉴욕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사무총장)와 부인 김근순 박사(임원, 입양아한국학교 교장), 두 분이 운동본부를 방문하였다. 뉴욕 한국어정규과목채택회 활동으로 정규 한국어 교사 양성 및 한국어 학급 개설에 관한 노력, 교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대한 미담 등 미 현지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대한 상세 사항을 나누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엔 운동본부 활동과의 상호 협력을 논의하였고 국외 한국어 교육 발전에 대한 합일된 마음을 확인하였다.

■ 배재대학교 한류문화산업대학원과 ICKC 간의 포괄적 MOU 체결

6월 4일(월), 오후 5시 서울 서소문 배재대학교 회의실에서 배재대학교와 ICKC 간, 한류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협약식이 있었다. 협약식에는 황방남 배재학당 이사장,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표재순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좌교수, 강병호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 등 배재대학 인사와 이광규 ICKC 이사장, 박갑수 연구위원장, 위호인 홍보위원장, 이대근 상임이사, 박원출 감사, 이형모 위원 및 ICKC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4월, 5월, 6월 ICKC 문화탐방프로그램 진행

* 4월 문화탐방: 4월 10일(화) 오후 12:30~4:00, '장충단과 목멱산'

4월 ICKC 문화탐방은 "종류기행" 모임을 이끄는 인문역사기행 전문가 최연 박사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장충단과 목멱산 외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방문하였으며, 관계자의 안내로 기념관 투어를 함께 하였다.



* 5월 문화탐방: 5월 8일(화) 오전 7:30~오후 5:30,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국악체험'

5월 ICKC 문화탐방은 강원도 홍천 '마리소리골'에서 진행하였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투어 및 푸짐한 5월의 시골나물밥상의 오찬 이어진 실내악단 어울림(대표 이병욱 교수)의 공연과 더불어 신명나는 농악체험을 함께 하였다.



* 6월 문화탐방: 6월 12일(화) 오후 12:30~오후 4:30, '북악과 삼청동천'

6월 ICKC 문화탐방은 최연 박사의 해설과 함께 북악산 서울 성곽(사적 제 10호)을 따라 숙정문, 창의문, 북악의 수려한 골짜기인 백운동천, 삼청동천, 백석동천을 탐방하였다. 탐방 후, 이동민 회원택에서 산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막걸리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3회 바르셀로나 한국어 웅변대회’ 개최

스페인에도 한국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까딸루냐 주립언어학교(EOI)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열풍에 힘입어 3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스페인인을 대상으로 ‘바르셀로나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7일, 예선에서 입상한 15명이 본선대회를 치렀으며 스페인 주재 오대성 대사, 까딸루냐 정부 문화부와 교육부 인사 250명이 참석하였다.

웅변 주제는 한국의 유교, 한국 영화, 한국과 나, 신사임당, 한옥, 한국과 나의 가족사, 한국어와 나, 한국의 방언 등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관객은 스페인어로 번역된 책자를 읽으며 웅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한복을 입은 학생들은 정중한 인사로 한국의 인사법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대회 후에는 모든 관객에게 한국 음식으로 준비된 도시락과 음료를 제공하여 다시 한번 한식과 한국인의 관대함을 스페인 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료제공_ EOI 한국어교육 설립자 UAB대학 교수 유석만, EOI 한국어 교수 황성옥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부 추천도서—

● 외국인들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국영문 합본)

김해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에프스케이

press.knou.ac.kr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 ICKC 9월 문화탐방
연변자치주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참관 안내

2012년 9월 문화탐방은 연길시정부 공식초청 프로그램으로
“연변자치주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참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부동반을 환영합니다.

• **기간** : 2012년 9월 1일(토)~5일(수), 4박 5일

• **행사내용**

- 1) 비즈니스 : 무역, 수출입 상담, 중국 투자 박람회
- 2) 문화예술(전통예술공연), 관광(용정, 도문, 백두산), 한국 음식 페스티벌

• **여행 총경비 (예정)** : 약 110만원/ 1인(비자발급비용 별도)

- 항공료 : 약 70만원, 전세기 2대 (아시아나)
- 행사참가비 : 40만원(USD\$350)
- 중국현지의 연변국제호텔 등록데스크에 납부 (현금, 수표만 가능)

• **참가신청 마감** : 6월 27일(수)

- 참가자 성명(한글/영문), 주민번호앞자리, 연락처
- 참가신청 접수 후, 개별연락에 따라 여권 및 비자신청관련 안내 예정임.

• **항공료 입금 기한** : 7월 2일(월)~7월 13일(금)(항공료는 별도 공지 예정)

• **여권, 비자(개인비자) 신청** :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 개별안내 예정임

• **문의 및 참가신청** : 김태균 차장

전 화 : 02)2285-1070, 010-9486-1000

팩 스 : 02)2285-5070

이메일 : hangyobon@gmail.com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